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6월 16일)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예천군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한 뒤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해병대 제1사단을 찾았다. 예천스타디움에 마련된 지휘통제실 앞에서 해병대 제1사단 박상현 대령과 악수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는 진우 스님. 스님 뒤로 김학동 예천군수도 함께 했다. 사진=윤호섭 기자

한국불교 一心으로 수해지역에 '자비 손길'

조계 · 천태 · 태고종 등 성금 기탁 · 희생자 천도재

조계종, 경북 · 예천에 2억 원
천태종도 지원…봉사자 격려
태고종 '희생자 천도재' 계획
동국대는 피해학생에 장학금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폭우가 한반도를 덮쳐 충청 이남지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해 한국불교가 팔을 걷어붙였다.

가장 먼저 최근 취임 300일을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경북 예천군으로 달려가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 · 경 등에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7월 25일 오전 예천군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를 만나 현장 복구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스님은 지자체장으로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김학동 군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그간의 고생을 위로했다.

진우 스님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간략한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뒤 수해 복구 성금 1억 원을 경상북도에, 1억 원과 3000만원 상당의 식료품 · 생필품을 예천군에 전달했다. 성금은 아름다운동행 모금을 비롯해 이날 조계종 5개 교구본사(용주사 5000만원 · 직지사 3000만원 · 불국사 3000만원 · 은해사 2000만원 · 고운사 1500만원)가 힘을 보태 마련됐다. 또한 국제선센터는 수건과 칫솔 · 치약, 비누 등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했다.

진우 스님은 전달식에서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려 했는데 비가 계속돼 예정보다 늦어졌다. 희생자들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의 아픔에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가 어서 복구돼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종도들이 마음 모아 작게나마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천재지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지사와 군수님을 비롯해 예천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역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로 입을 뗀 김학동 군수는 "산악지역 안전을 위해 있는 댐 3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유실과 농경지 침수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저지대 10개 마을이 휩쓸리고 그 중 7개 마을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하루 빨리 복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천군에 따르면 예천 북부지역은 6월 말부터 보름 동안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졌을 때 물폭탄이 쏟아졌다. 수해복구를 위해 지역 공무원은 물론이고, 해병대 제1사단까지 투입돼 실종자 수색과 가옥 · 창고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우 스님은 해병대 제1사단 지원 캠프가 자리 잡은 예천스타디움을 방문, 해병대원들을 격려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 1300여 명의 장병들이 복구에 전념하고 있다는 박상현 대령의 보고에 진우 스님은 "마음이 울컥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군장병이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늘 힘썼다"면서 "지자체의 지원으로 큰 불편 없이 복구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힘든 일"이라고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예천군 방문에는 용주사, 직지사, 불국사, 은해사, 고운사 주지스님과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함께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은 27일 예천군청을 찾아 긴급구호 성금 5000만원을 김학동 군수에게 전달했다. 산하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는 쌀과 의류, 수건, 담요 등 3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덕수 스님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하루속히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태종복지재단은 피해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에 나선 예천대대 소속 군장병 150여 명의 석식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진행했다. 덕수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스님들은 전달식 후 군부대에 방문,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21일 '수해피해 참사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발표하고 "대승교화 종단으로서 가족을 잃은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전국 각 사암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백중 천도재를 함께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고종은 수재민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사암마다 수재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자비나눔의 보살도를 행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재난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 중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반도 평화에 남북 대화 필요"

종지협, 정전 70주년 메시지 발표
달라이 라마도 한반도 평화 기원

국내 7대 종교 대표자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 기원 메시지를 발표했다.

종지협은 7월 27일 발표한 정전 70주년 평화 메시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기원하며'를 통해 "7대 종교 대표들은 남북 당국이 한반도의 긴장 해소와 평화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종지협은 그동안 남북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 △4.27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화해와 통일을 향한 평화의 길을 닦아왔다고 강조했다.

종지협은 이어 "우리민족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차원의 교류 협력, 특히 종교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 재개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당국 회담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티베트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24일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을 때 저는 스무 살도 되지 않았다. 지금은 88세로 지난 수년 동안 세계 각지의 젊은 지도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려는 그들의 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무기에 의존하거나 무력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반도의 모든 주민이 평화와 번영,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도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전 70주년 종교인 평화선언'을 개최했다. 평화선언에는 불교에서 조계종 전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조계종 전 포교원장 지홍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종교인들은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의 파국을 막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절박한 호소를 국민 여러분과 세계에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여름 휴가로 다음 주 휴간합니다.

인도의 종교와 철학의 역사
인도사상사

깊이와 재미를 함께 갖춘 인도 사상 입문서!
오랜 세월 인도인들의 삶 속에 스민 문화, 종교, 철학, 영성 등을 이해하기 위한 뼈대를 상세하면서도 쉽게 보여준다.
존 M. 콜러 지음, 허우성 옮김/신국판/양장/792쪽/값 55,000원

관세음보살님 따라 그리기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 컬러링북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과 42수주 진언을 그리고 외움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불보살의 가피를 받게 된다.
조미애 그림/국배판/무선/72쪽/값 14,000원

周易禪解
우익지욱 선사 『주역선해』의 현대적 강설!
우익지욱, 『주역선해』를 통해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